

EDU-06 사전·사후 공통평가 · 1/3

사전과 사후에 같은 역량을 확인하되, 답을 외우기보다 선택 이유를 적는다.

1. 전·월세와 주택금융 안전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?

- ☐ A. 주소와 실제 호실을 확인한다.
- ☐ B.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.
- ☐ C.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.
- ☐ D.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.

2.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?

- ☐ A. 현재 보이는 금액만
- ☐ B. 비용·위험·기한·보호·증거
- ☐ C. 광고 순위와 후기 수
- ☐ D. 친구가 선택한 상품

3.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?

- ☐ A. 기억해 둔다.
- ☐ B.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.
- ☐ C. 계약서·설명·거래·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.
- ☐ D.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.

4.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?

- ☐ A.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.
- ☐ B.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.
- ☐ C. 신청·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.
- ☐ D.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.

5.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?

- ☐ A. 추가 차입·송금으로 시간을 번다.
- ☐ B.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.
- ☐ C.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·기한·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.
- ☐ D.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.

EDU-06 사전·사후 공통평가 · 2/3

사전과 사후에 같은 역량을 확인하되, 답을 외우기보다 선택 이유를 적는다.

6. 사례 '소유자가 다르다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위임 범위·인감·본인 연락·입금계좌를 공식 서류로 확인한다.
- ☐ B. 중개사가 안다고 하니 계약한다.
- ☐ C. 계약금을 현금으로 준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7. 사례 '잔금 전 근저당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잔금 지급을 멈추고 특약·해제·법률상담을 검토한다.
- ☐ B. 이미 계약했으니 지급한다.
- ☐ C. 구두 약속만 받는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8. 사례 '신탁 주택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신탁원부·임대 권한·수탁자 동의를 확인한다.
- ☐ B. 임대인 말만 믿는다.
- ☐ C. 보증금부터 보낸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9. 사례 '반환 지연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종료 통지·계약·지급·거주 증거를 모아 보증기관과 법률창구에 상담한다.
- ☐ B. 열쇠를 먼저 넘기고 기다린다.
- ☐ C. 구두 약속만 반복한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10. 사례 '갱신과 퇴거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통지 일시·방법·상대 답변을 문서로 남기고 기한을 확인한다.
- ☐ B. 전화로만 합의한다.
- ☐ C. 당일 통보한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EDU-06 정답과 해설 · 3/3

문항별 정답과 선택지 해설

1. 정답 A

- A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주소와 실제 호실을 확인한다.
- B. 이 선택은 '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주소와 실제 호실을 확인한다.
- C. 이 선택은 '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주소와 실제 호실을 확인한다.
- D. 이 선택은 '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주소와 실제 호실을 확인한다.

2. 정답 B

- A. 이 선택은 '현재 보이는 금액만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B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C. 이 선택은 '광고 순위와 후기 수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D. 이 선택은 '친구가 선택한 상품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
3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기억해 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B. 이 선택은 '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C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D. 이 선택은 '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
4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B. 이 선택은 '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C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D. 이 선택은 '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
5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추가 차입·송금으로 시간을 번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
- B. 이 선택은 '연락과 서류를 피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C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D. 이 선택은 '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
6. 정답 A

- A. 대리권과 입금 상대를 문서로 확인한다. 소유자 확인 없는 지급은 회수 위험을 키운다.
- B. 이 선택은 '중개사가 안다고 하니 계약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대리권과 입금 상대를 문서로 확인한다. 소유자 확인 없는 지급은 회수 위험을 키운다.
- C. 이 선택은 '계약금을 현금으로 준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대리권과 입금 상대를 문서로 확인한다. 소유자 확인 없는 지급은 회수 위험을 키운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대리권과 입금 상대를 문서로 확인한다. 소유자 확인 없는 지급은 회수 위험을 키운다.

7. 정답 A

- A. 잔금 직전 등기를 다시 확인한다. 권리 변동이 특약 위반인지와 대응은 증거를 갖춰 판단한다.
- B. 이 선택은 '이미 계약했으니 지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잔금 직전 등기를 다시 확인한다. 권리 변동이 특약 위반인지와 대응은 증거를 갖춰 판단한다.
- C. 이 선택은 '구두 약속만 받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잔금 직전 등기를 다시 확인한다. 권리 변동이 특약 위반인지와 대응은 증거를 갖춰 판단한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잔금 직전 등기를 다시 확인한다. 권리 변동이 특약 위반인지와 대응은 증거를 갖춰 판단한다.

8. 정답 A

- A. 신탁에서는 누가 임대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한다. 일반 소유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.
- B. 이 선택은 '임대인 말만 믿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신탁에서는 누가 임대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한다. 일반 소유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.
- C. 이 선택은 '보증금부터 보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신탁에서는 누가 임대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한다. 일반 소유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신탁에서는 누가 임대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한다. 일반 소유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.

9. 정답 A

- A. 권리와 점유 이전 시점을 상담 후 정한다. 새 임차인 유무가 반환 의무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.
- B. 이 선택은 '열쇠를 먼저 넘기고 기다린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권리와 점유 이전 시점을 상담 후 정한다. 새 임차인 유무가 반환 의무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.
- C. 이 선택은 '구두 약속만 반복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권리와 점유 이전 시점을 상담 후 정한다. 새 임차인 유무가 반환 의무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권리와 점유 이전 시점을 상담 후 정한다. 새 임차인 유무가 반환 의무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.

10. 정답 A

- A. 기한과 합의 내용을 기록한다. 법 적용은 계약 시점과 사정에 따라 달라 공식 상담이 필요하다.
- B. 이 선택은 '전화로만 합의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기한과 합의 내용을 기록한다. 법 적용은 계약 시점과 사정에 따라 달라 공식 상담이 필요하다.
- C. 이 선택은 '당일 통보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기한과 합의 내용을 기록한다. 법 적용은 계약 시점과 사정에 따라 달라 공식 상담이 필요하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기한과 합의 내용을 기록한다. 법 적용은 계약 시점과 사정에 따라 달라 공식 상담이 필요하다.